

Shalom!

This month, my wife and I visited Korea to attend a strategic missions conference. Thanks to the prayers and support of many, we have been able to complete the tasks entrusted to us this year and we give thanks to the Lord for this grace.

Recently, the Lord helped us send our latest group of sisters to the next shelter in the process of resettlement. Seeing them work through the pain and wounds of their past lives, confess Jesus as their true Lord, and choose to be baptized, we felt the past few years of difficulties at the XXX shelter transform into a place of fulfillment and gratitude.

Even during our brief stay here, God has brought us much comfort and encouragement through our encounters with the sisters who came to Korea through our shelter. Though they may speak the same language, these women have had to adapt as strangers to a world with vastly different worldviews and views, and just this chance to witness their journeys has been a source of great joy and reward for us.

At the end of this month, we will return to our ministry site to finish out the rest of our three-year term (we have 2years left) of serving the NK refugees. I am grateful to the Lord for blessing us with good health to continue in this work, and we ask that you continue praying for us in this matter.

Finally, we would like to thank all our supporters and churches for their support and prayers for our ministry. We wish you all a blessed New Year season.

Sincerely,

이어짐, 홍실로 선교사 올림

shalom!

주님 안에서 사랑하고 존경하는 동역자 여러분께 shalom의 인사 올립니다!

연말을 맞아 저희 부부는 선교회 전략회의 참석 차 잠시 한국에 나왔습니다. 많은 분들의 기도와 지지 덕분에, 올 한 해도 저희 부부에게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지금까지 내내 그리 해주셨듯이, 얼마 전에도 주님께서는 저희 예제원 올해의 마지막 양육 자매님들을 다음 수용장소로 안전하게 보내드릴 수 있도록 도와 주셨습니다. 자매님들이 지난 삶의 아픔과 상처를 뒤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한 주로 고백하며 세례를 받는

모습은, 그동안 힘들었던 XXX 시간들을 보람과 감사로 바꿔주었습니다. 다시 한 번 이 모든 은혜에 하나님과 여러분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잠시 한국에 나와 있는 동안에도, 하나님께서는 저희 예제원을 거쳐 한국에 들어와 있던 자매님들과의 만남을 통해 저희 부부에게 큰 위로와 격려를 해주셨습니다. 같은 말을 사용하는 한 민족이면서도 세계관과 가치관이 전혀 다른 세상에 들어와 사는 신앙의 이방인들이 이곳에서 잘 적응하고 믿음의 뿌리를 내리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저희에게는 큰 기쁨이자 보람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저희는 새로 들어올 자매들을 맞이 위해 이 달 말(31 일)에 다시 사역지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건강이 허락하는 한, 그곳에 머물며 저희에게 맡겨질 탈북 난민 자매님들을 섬기고 양육하게 됩니다. 이제까지도 늘 그랬듯이 주님께서 저의 부부의 건강을 잘 돌봐주실 줄 믿지만, 이 또한 여러분의 중보기도와 더불어 이뤄진다는 사실을 알기에 다시 한 번 여러분의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다시 한 번 저희 부부의 복음 통일 사역을 지지해주시고 기도해주신 여러분 앞에 감사드리며, 기쁨의 성탄과 복된 새해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2025 년 12 월 29 일,

이어짐, 홍실로 선교사 올림